

어! '상어고래'가 어떻게 무등산까지 왔을까

무등현대미술관 환경미술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展

12월 6일까지 중심사 일대

설치작가 6명 작품 설치

인간과 자연 공감·공존 노래



무등현대미술관이 오는 12월 6일까지 개최하는 환경미술제에서 무등산 중심사지구에 설치한 위재환 작가의 '여행자'를 등산객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들로 분비하는 무등산에 고래, 나무를 받치고 있는 큰 손, 나무 사이사이에 매달려 있는 악보, 마치 인디언들이 만들어 놓은 듯한 천막 등 각종 조형물들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이 2015 환경미술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전을 12월 6일까지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개최한다. 특히 3회째를 맞고 있는 올해는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전시장 외부에도 작품이 설치돼 시민들을 찾아간다.

본 전시에서는 김지은, 문선희, 엄기준, 이정배, 조성숙, 표인부 작가가 참여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낸다. 산업화와 도시화, 자원남용의 폐해를 들추고, 보호하고 동반해야 할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6명의 설치작가들이 참여한 특별 전시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되짚어보자는 주제에 맞게 시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자연스레 작품을 접하고 환경에 대한 생각에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중심사버스터미널에서 산을 향해 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왼편으로 탐방안내지원센터가 나오고 인근에 마련된 잔디밭에서는 이정용 작가의 작품 '휴식'을 볼 수 있다. 목재 등을 이용해 실제 집대 크기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인간의 무절제한 개발로 지친 자연의 휴식을 시각화했다. 자연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이불 덮인 침대를 형상화한 것이다.

탐방안내센터에서 산 위로 난 길을 걸어가다 보면 편백숲이 나온다. 편백숲을 잘 살펴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뭇가지로 된 오션지가 설치되었고 그 위로 음표가 매달려있다. 김수옥 작가의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결합-불이(不二)'다. 어린 시절 낚시대를 부르며 숲을 걸었던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작품이다. 편백숲에서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그 옆으로 정현경 작가의 '숨은 그림찾기'가 있다. 나무 위에 묶인 하얀 천 밑으로 꽃, 동물 등이 그려진 물렁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바람도 쉬어가는 이 곳에서 작품이 그려진 돌을 찾으며 즐거움을 느껴보라는 작가의 의도다.

탐방소에서 도로 맞은 편을 보면 박정용 작가의 '프롬 더 핸드(From the hand)'가 보인다. 대형 손 조형물(가로 2.5m×세로 1.5m×높이 1.6m) 위로 실제 나무 한그루가 심어져있다. 마치 손이 성장하고 있는 나무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연을 만져보고 느낌으로써 자연과 공감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박 작가의 작품 뒤 산책로를 따라 시선을 옮기면 알록달록한 천막이 시야에 들어온다. 나무를 기둥삼아 원뿔모양으로 설치된 이 작품은 윤운덕 작가의 '즐거움 상상'이다. 윤 작가는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나뭇가지 사이에 색실로 만든 가짜 거미줄을 달아 나뭇잎 등이 자연스럽게 들러붙을 수 있게 했다. 자연의 도움으로 작품을 완성시키고 있다.

인근 나무다리를 걷는 등산객들의 시선이 계속 한쪽으로 쏠린다. 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얀 고래 조형물이 있기 때문이다. 위재환 작가의 '여행자'는 오염된 바다를 피해 산으로 도망쳐온 상어고래를 표현했다. 인간의 잘못으로 갈 곳을 잃은 고래의 슬픔을 전해주고 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아트맵에 작품들 주위에 숨겨진 스탬프를 찍어오면 예코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해 작품 감상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 전시기간 내 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마다 '자연을 담은 오너먼트 만들기'도 진행한다.

정승규 관장은 "탐방객들이 단순히 무등산에서 등산만 할 것이 아니라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을 보고 환경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5 환경미술제 특별전시 아트맵



무등산 중심사지구 탐방안내센터 인근에 설치된 박정용 작가의 'From the hand'

이난영과 '목포의 눈물' 80년

여행가 한비아씨가 들려주는 '1g의 힘'

올해는 대중가요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또 내년은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1916~1965) 탄생 100년을 맞는다. 1935년 발표된 '목포의 눈물'은 일제시대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설움을 달래줬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호남인들에게 각별한 노래이기도 하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11월호(241호)에서는 특집 '목포의 눈물 80년, 한국 대중가요 100년'을 주제로 다채로운 대중가요 이야기를 준비했다. '목포의 눈물'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과 함께 이를 부른 가수 이난영의 음악 세계를 살펴봤다. 또 서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한국 대중음악 한 세기를 돌아보고, 경주 한국 대중음악박물관과 한국적 포크 음악의 출발점인 광주음악을 소개한다.

기획물 '피로하다 O.O.데이'에서는 '베베로 데이'와 '벨런타인 데이' 등 데이마케팅에 대해 들여다 봤다. 또 '스마트한 당신은 앱스타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다양한 어플을 선보인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휴머니즘 활동가이자 작가, 여행가인 한비아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씨를 만났다. 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현장 경험 등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히는 데 '1g의 힘'이라고 보태고 싶다"는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봤다.

또 다른 기획연재물 '사람이 브랜드'의 주인공은 '향수'의 시인 정지용이다. 추모기획으로 고흥 출신 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했고, 신경숙 표절 의혹으

광주일보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11월호



로 촉발된 표절논란 양상과 반응 등을 조명했다.

'남도의 장인들'에서는 강진 청자명인 1호 김경진 명인을 만나 비석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봤다. '리빙 앤 스타일'에서는 섬유공예가 우영희씨의 LED 조각보 조형등 작품세계를 살펴봤다.

이 밖에도 신설된 '전남의 미래, 다도해를 가다' 시리즈와 '드론으로 본 세상' 코너도 독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아트타운갤러리 서양화가 강남구 작품전

3~16일...30여 작품 전시

불개 벌어진 석류 속 짙 들어찬 열매가 금방이라도 캔버스 밖으로 쏟아질 것 같다. 빛을 반사하며 바닥에 흩어져있는 몇 개의 석류알은 열매라기보다는 붉은 보석처럼 보인다.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11월3일부터 16일까지 작품전을 연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 해바라기, 연꽃, 석류 등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꽃이나 시골풍경 등 화사하고 정겨운 자연의 표정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최근 선보인 '석류' 시리즈는 우연히 시골장터에서 본 붉은 석류의 강렬한 인상에서 소재를 얻었다. 한알씩 밀도 있게 그려 새콤달콤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전해준다.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자연을 따뜻



'수련'

하며 온화하게 표현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강씨는 개인전 26회 및 600여회의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동시대 겸임교수, 조선대 강사를 역임했고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해드립니다!

밀착토크
풍문으로 들었쇼 Show

MC 신현준
MC 홍진영

매주 월요일 밤 11시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